

##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6. 6. 27

## 금 용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# 1. 인사 말씀

- 오늘 회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
  -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협회장님들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였음

### 2. 국내·외 금융시장 동향

- 잘 아시다시피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당초 시장예상과 달리 '탈퇴'로 결정되었음
  -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영국의 EU 잔류를 전망하고 구축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한편,
    -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주가·국채 금리·환율 등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음
- 우리 금융시장도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투표결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음
- 다만, 국내증시 하락폭,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, CDS 프리미엄 상승폭 등은 과거의 위기에 비해 낮은 수준임
  - 6.24일 증시 하락폭은 과거 위기에 비해 크지 않았고,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한 외국인 자금 매도는 631억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음
    - \* (IT버블, '00.4.14일)△11.6%, (美 신용등급 강등, '11.8.8일)△3.8% (리먼브라더스 파산, '08.9.15일)△6.1%, ('08년중 최대 하락)△10.6%
    - CDS 프리미엄 상승폭도 6.5bp에 그치는 등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고,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임
      - \* 1일 CDS 상승폭(bp) : (美 신용등급 강등, '11.8.8일) +21.0, (리먼브라더스 파산, '08.9.15일) +23.6, (08년 위기시 최고 상승) +109.6
      - \* '16.6.24일 CDS 상승폭(bp) : (美)3.1 (日)5.5 (英)13.7 (獨)9.3 (中)10.0 (佛)14.0 (伊)41.5

### 3. 금번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영향

- 사상 첫 EU 탈퇴인 브렉시트 이슈는 여타 EU 국가들의 탈퇴가능성 등 향후 전개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
  - EU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협상과정 장기화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
- 하지만, 사안의 성격, 파급경로와 시차, 대응여건 등을 감안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
- ① 우선,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직전 예상과 다르게 나왔지만, 브렉시트 자체는 미리 예고되어 있는 이벤트였음
  -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영국·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준비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을 시작하였음
    - \* (영란은행) 2,500억 파운드의 긴급유동성 준비, 필요시 신속히 대응 (유럽중앙은행) 금융시장 불안시 신속히 추가 유동성 공급 예정, (미국 연방준비제도) 기존의 통화스왑을 통해 필요시 신속히 유동성 공급
  - 또한, 미국, 영국 중앙은행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였고
    - 자국의 은행들이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투표 전후에 발표한 바 있음
      - \* (영란은행, 6.24일) 현재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, 영국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은 충분히 양호, 불안정한 시기에도 실물부문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
      - \* (미국 연방준비제도, 6.23일) 실업률 상승,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, 자산가격 급락, 美 단기국채 마이너스 수익률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모든 은행(33개)이 자본적정성 등을 유지

- ② 둘째, 브렉시트는 실제로 현실화 되는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, '리먼 파산'으로 위기가 곧바로 발생한 '08년 위기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
  - EU 규약에 따르면 2년내 탈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나,
    - 각국 정상들의 동의로 협상기간 연장도 가능하고, 일각에서는 협상에 5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  - 무역 등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고 이에 대비한 국제적인 공조도 이루어질 것임
- ③ 셋째, 현재 상황은 '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, '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직접적인 금융시스템 훼손이나 자산 가치 급변동을 유발했던 위기와는 성격이 다름
  - '08년 위기는 리스크를 확산·증폭시키는 핵심적인 경로인 '금융부문' 자체의 위기였고,
    -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 자체가 직접 훼손 되면서 급격한 자금경색이 발생했지만
  - 브렉시트는 영국·EU와의 무역 연계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영향이 차별적·점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임
  - 특히, 우리나라는 對영국 무역비중('15년 기준 14%)이 낮고 영국과 실물부문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

④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웬만한 대외여건 악화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음

- \* (S&P) 9.15일, A+ → AA- (Moody's) 12.18일, Aa3 → Aa2
- \* G20중 AA-(Aa2) 이상 국가 : (S&P) 8개 국가, (Moody's) 7개 국가

○ 대외건전성 측면에서,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고, 단기외채 비중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

- 또한, 경상수지도 5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국내 은행들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

- \* 외환보유액('16.4월, 조\$) : (中)3.2 (日)1.3 (스위스)0.7 (사우디)0.6 (대만)0.4 (러)0.4 (韓)0.4
- \*\* 韓 단기외채/외환보유액(%) : ('08말)74 (10)47 (12)39 (14)32 (15)29 (16.1Q)28

○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, 정부부채 비중이 GDP대비 35.9%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음

- \* 정부부채/GDP(%), '15) : (선진국)104.8 (신흥국)45.1 (韓)35.9

□ 다만, EU 추가 탈퇴, 과도한 실물부문 둔화 등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, 금융시장 변동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음

○ 국내외 금융시장이 작은 이슈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

#### 4. 대응 방향

□ 금융당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EU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해나가는 한편,

○ 당면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중심을 확고히 잡고, 시장상황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여,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

① 먼저, 기 가동중인 24시간 점검체계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외 익스포져, 영국·유럽의 주식·채권 자금 동향 등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

○ 기재부·한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글로벌 IB·외신 등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도 한층 더 강화할 것임

②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임

○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과감히 시행될 수 있도록, 이미 마련된 위기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의 절차·내용 등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

○ 시장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미리 마련하여, 불안심리가 일정 수위를 넘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음

③ 특히,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외화차입금,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임

○ 국내은행은 '08년 금융위기 상황이 3개월 지속되는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

- 극단적인 시스템적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도 '08년 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

※ 지난 금요일(6.24일) 금감원은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, 현재까지 양호한 상황임

- 그러나, 브렉시트와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
- 앞으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외화자금시장 관련 특이사항을 일별로 점검하고,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

④ 가계·기업부채 등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도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

- 가계부채는 '상환능력 범위 내에서',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' 원칙을 현장에 구현하여, 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
- 집담대출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등 잠재적 위험 요인도 지속적으로 최소화해 나갈 것임\*

\*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('16.7월 보험업권 등)

-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분담 원칙하에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,
-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
- 또한, 일시적 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임

5. 금융권에 대한 당부사항

- 지금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부문에 대한 차질없는 자금공급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각 금융업권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임

① (투자자 심리 안정) 우선, 투자자들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시장상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주시 바람

-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거나,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규율을 강화해주시기 바람

- 거래소는 6.30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

- 특히,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는 금융회사의 영업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실천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

② (외화유동성 점검) 또한, 각 금융회사별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람

-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지만, 외환 부문의 특성상 유사시에 대비한 더욱 견고한 방어막을 쌓아둘 필요가 있음

- 고유동성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화부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 하는 등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

- 또한, 금융당국과 함께 각 은행들도 은행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여 상황 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
  - 아울러, 보험사, 증권사는 해외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회수를 감소 등의 외화유동성 위험을 점검하고
    - 여전사도 외화부채의 차환을 하락 등에 대비하여 외화부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, 관리해 주시기 바람
- ③ (건전성 관리) 금융권역별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
- 현재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며,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이 견고한 상황임
    - \* '16.1분기말 기준, 금융권역별 건전성 지표  
(은행) BIS 비율 : 14.02%, 부실채권비율 : 1.87%  
(보험) 지급여력비율 : 273.9%, (증권) 영업용순자본비율 : 371.9%
    - 특히, 작년부터 금감원을 중심으로 '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에 대해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 왔음
  - 다만,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브렉시트에 따른 실물부문의 영향이 무역경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
    - 지속적인 건전성 확보를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을 충분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
- ④ (실물부문 지원 강화) 외화유동성, 건전성 확보 과정에서 지나친 여신 회수 등으로 기업 자금상황이 위축되거나 실물부문의 성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람

- 국내 수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달러화, 엔화가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
    -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, 무역대금 관련 금융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
  -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중인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되,
    -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막거나, 구조조정 과정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신운용을 해 주시기 바람
- ⑤ (저소득층 지원) 저신용·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
- 취약계층일수록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 있음
  - 작은 자산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고 손실에 대한 체감도는 다를 수 있으니,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함
    - 중금리 대출, 정책금융 지원, 채무 재조정 등 모든 가용수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시기 바람
- ⑥ (협력체계 강화) 그리고, 각 금융권역·금융회사별로 위험요인이 감지되거나, 시장안정을 위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람
- 건의된 사항은 24시간 대응체계(관계기관 합동 점검반)을 통해 모든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검토하고
  -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임

7 (회원사에 대한 논의사항 전달) 마지막으로 각 금융협회는 조속히 회원사들에 대하여

- 현 상황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주시고 **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**해주시기 바람

## 6. 마무리 말씀

□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**과도하게 불안** 해하거나 **성급하게 행동** 할 필요가 없으며

- **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와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침착하게 대응**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림

□ 정부도 현재의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부터 **국민의 재산**을 지키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**최선의 노력**을 다 하겠음

- 특히, **단기적인 시장안정** 뿐만 아니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통해 **우리경제의 체질**을 근본적으로 **강화**하는 중장기 노력을 가일층 지속함으로써

- 세계경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

## 참고

###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

- ◆ 브렉시트는 향후 상황전개의 불확실성이 크고, 금융시장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
- ◆ 하지만, 사안의 특성과 대응여건 등을 감안시 '08년 위기와 같은 금융시스템 위기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

#### 1 Black Swan vs. 알려진 리스크

- 예상과 다른 결과로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나, 이미 알려진 리스크로 시장은 상당기간 준비해왔고 충분히 대응 가능
- 또한, 영국·EU·미국 등 각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향을 준비하여 상황변화에 대응할 예정
  - \* (BOE) 2,500억 파운드의 긴급유동성 공급 준비 등, (ECB) 금융시장 불안시 유동성 공급 예정, (FED) 기존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

#### 2 '이미 발생'한 사건 vs. '아직 발생하지 않은' 사건

- '08년 위기는 현실화된 위기였으나, 브렉시트가 현실화\*되어 무역 등에 실질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
  - \* 2년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나(원칙적으로 자동 탈퇴), 각국 정상들의 동의로 협상기간 연장이 가능, 협상에 5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 존재

#### 3 '금융시스템 자체'의 위기 vs. '무역경로를 통한' 위기

- '08년은 리스크의 확산·증폭의 경로인 '금융부문'의 위기였으나, 브렉시트는 英·EU와의 '무역 연계정도'에 따라 영향이 다를 전망
  - \* (HSBC)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對英 수출규모가 GDP의 1%이하로 영국 경제에 대한 노출이 크지 않아 컨트롤이 가능한 충격을 받을 것

◇ 다만,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

- \* 스코틀랜드 독립에 따른 영국불안 확대, 회원국의 EU 추가탈퇴 등 EU 체계의 불안, 교역감소에 따른 실물부문 둔화 등